



산업안전이 가장 가치있는 투자

간 1710억 달러의 자금을 지출하고 있다. 이 비용은 몇몇의 경우 회사 총 수익의 최대 5%에 이르기기도 하며 주로 회사 수익금을 통해 직접 충당된다. 게다가 미국의 학협회에서 발간하는 저널에서 밝힌 2003년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재해와 관련, 결근을 포함한 줄어든 생산 시간의 손해 부분은 연간 612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에 산업안전 재정을 관리하는 안전 코디네이터의 고용이나 안전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직원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을 크게 낮추고 재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OSHA는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을 설립함으로써 작업장의 재해와 질병에 관한 비용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건수 줄었지만 처리비용은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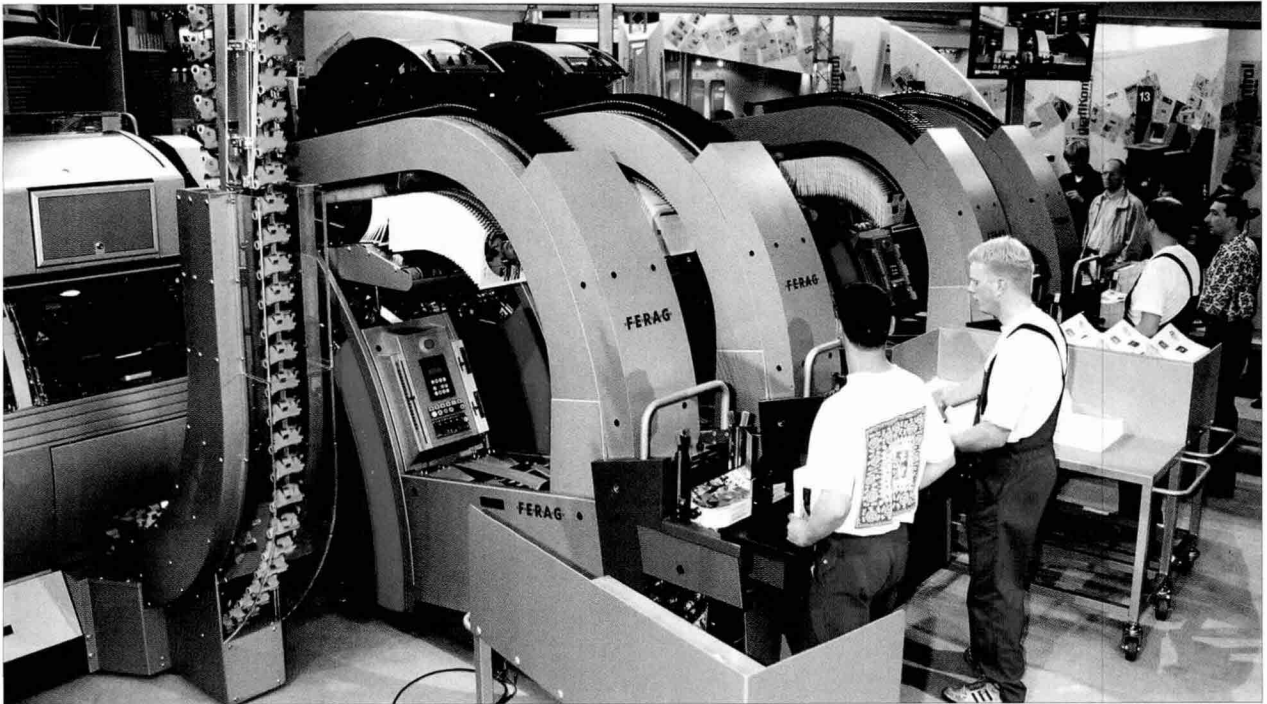
미국 노동통계국 연구 결과는 인쇄 및 출판산업에서 재해 및 질병 발생률이 감소해 왔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2001년의 통계자료를 보면 정규직원 100명당 4.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100명당 5건이었던 1999년의 사고건수 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사고비용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1998년에서 2001년 사이 모든 산업 비정규직 사업장의 평균임금 증가는 약 13.5%에 그쳤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1년까지의 지출부문 중 부가적으로 사용된 사고비용은 무려 16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세워클리 소재 GAFT의 환경, 건강, 안전 담당 매니저인 개리 존스는 모든 인쇄업체들이 진정으로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노력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많은 인쇄업체들은 새롭고 자동화되는 기술의 수용이 사고의 위험을 감소시켜 줄 것이라고 잘못 믿고 있다. 향상된 기계화를 주요 특성으로 하는 새로운 장비는 인쇄현장 여러 작업들에서 작업자의 물리적인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었지만 몇몇 자동화 작업의 측면에서는 재해 유형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특정 부문의 근육이

1999년 이래로 미국의 인쇄산업에서는 적은 수의 노동자들이 많은 양의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잠재된 위험성에 따라 약 6만개의 정규직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사고가 인쇄현장에서 매일 일어나지는 않지만 모든 작업장에서 고루 발생하는 위와 같은 재해관련 통계는 산업안전을 무엇보다 고려해야 한다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미국 노동부 소속의 직업안전건강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이하 : OSHA)에 따르면 산업재해 및 질병과 관련, 미국은 연



뭉치거나 빠는 것, 혹은 소프트-티슈 재해로 알려진 머슈쿨 로스켈레탈 장애는 자동화 기계 작업에 요구되는 단순 반복 운동에 따른 결과이다.

존스는 “이에 대한 가장 나쁜 평가는 이를 특수한 경우로 보고 산업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대하는 것이다”라며 “이것도 현재의 우려 대상에 포함돼 있는 다른 재해들과 동등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은 대규모 업체들보다 안전 프로그램의 도입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업체 역량에 맞게 적용돼야

PIA중앙아메리카(PIAMA)에서 규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매트 카알레라(Matt Kaarilela) 부사장은 많은 안전 훈련과 프로그래밍이 대형 인쇄업체들을 상대로 만들어졌으면서도 소형 업체들에게 똑같은 규정을 따르도록 강제된다고 밝혔다. 즉 “소규모 업체들은 이와 같은 안전규정을 따르기에 넉넉한 시간과 자금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벌금이 부과 될 때까지도 자기 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국립직업안전건강연구소(NIOSHA)는 소규모 업체, 정부 에이전시, 컨설턴트 등의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 및 건강 리소스 가이드’를 만들었다.

안전 문화 창조하기

미국 워싱턴주 렌톤에 소재하고 있으며 148명의 직원을 고

용, 매우 높은 품질의 상업용 인쇄와 그래픽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트로잔리소(Trojan Litho)는 1997년 처음으로 안전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에 앞서 제너럴 매니저 웨인 밀라지(Wayne Millage)는 직원 안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조사한 바 있다. 이 때 그는 안전 컨설팅, 교육훈련 서비스와 그 사항들에 대한 워크숍을 현장에서 직접 제공하는 듀폰(DuPont)의 안전훈련관찰프로그램(Safety Training Observation Program 이하 STOP)을 선택했다.

이를 계기로 트로잔리소는 듀폰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모듈로써 직원들을 위한 STOP, 감독관을 위한 STOP을 분리 시행해왔으며 2004년에는 인간 공학 프로그램을 위한 STOP의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트로잔의 프로덕션 매니저 개리 벤티치(Gary Vetch)와 안전 환경 분야 코디네이터 캐롤린 퍼킨스(Carolyn Perkins)는 듀폰사 전략의 설립 초기부터 서로 도왔다. 이에 따라 구성된 지원팀은 1주 3시간씩의 훈련 및 세미나를 통해 그들 또는 회사 동료들의 행동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14주 동안 배웠다. 그리고 안전 훈련, 위험 조건 교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했다. 이어 안전지원팀은 트로잔의 나머지 직원들에게도 훈련시켰다.

듀폰사의 프로그램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퍼킨스는 “커뮤니케이션은 STOP프로그램의 가장 큰 가치”라며 “동반자관계를 갖고 업체 직원들에 대한 대화를 통해 안전 프로그램의 질의 강화를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감독관들은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점검하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의사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잠재되어 있는 안전과 관

STOP제도 운영 등

있는 행동들의 체크리스트와 이에 대한 관찰을 기록할 수 있는 STOP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관리 감독관들은 직원들의 제안에 귀기울이며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을 고치도록 노력한다.

또한 월레 컨테스트를 통해 안전에 관한 가장 혁신적인 제안을 한 직원에게는 25달러 상품권을 제공한다.

투자만큼 비용 절감 가져와

퍼킨스에 따르면 산업 안전에 대해 직원 1인당 소요된 대략 75달러의 초기 투자 비용은 여러 차례에 걸쳐 되찾게 된다. 1997년, 작업시간에 영향을 주는 트로잔의 평균 재해 회수는 총 6회였다. 그러나 과거 3년 동안 한 번도 이와 같은 재해가 없었으며 2003년에는 단지 7건의 미미한 재해만 발생했다. 이에 STOP을 시행한 이래로, 트로잔의 산업재해 관련 비용은 6천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퍼킨스는 “STOP은 우리의 재해 예방을 도와준다”며 “직원들은 우리의 규칙들을 잘 따라가고 있으며 만약 사전에 더 많이 대비한다면 사고는 더욱 감소할 것이다. 안전은 직원들의 사기, 품질, 생산성 등 모든 방면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트로잔리소는 OSHA에 의해 자발적보호프로그램(Voluntary Protection Program, 이하 VPP) 적용을 독려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협회와의 협조적인 관계를 제공하고 건강과 안전 프로그램에 효과적인 작업장을 만들며 모범적인 작업 환경을 달성하고 있는 직원들과 고용주의 노력들을 의미한다.

인쇄산업 특화된 접근 필요

일반 안전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보다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인쇄산업에서 안전에 대한 이슈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달라스 소재의 밀렛프린터(Millet the Printer)에서 환경 및 안전 규정 담당 매니저로 복무하고 있는 사라 후에브너(Sara Huebner)는 PIA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안전에 관한 정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이에 밀렛프린터는 여러 해 동안 안전-컨설팅을 살펴본 후 PIAMA 프로그램으로 변환했다.

사라는 “산업별로 특화된 접근이 우리 상황에 훨씬 더 알맞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했다”며 “PIA 대표자들은 인쇄업체 직원들의 경험을 분담하고 있어 존경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노동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대표성을 가지고 인쇄산업에서 특화된 문제점과 특수 기계류에 대해 서슴없이 말하는 대표자들의 능력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PIAMA는 지역 PIA 지부 중에서 규정 담당 직원을 가진 가장 큰 곳 중의 하나로서 인쇄업체들에게 안전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여러 가지 심층적인 옵션들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실질적인 프레스룸 검사를 포함한 인쇄업체들을 위한 12시간의 교육 지도, 일반 인쇄체를 위한 10시간의 OSHA 과정 등으로 구성된 프린트가드 트레

퍼킨스에 따르면 산업 안전에 대해 직원 1인당 소요된 대략 75달러의 초기 투자비용은 여러 차례에 걸쳐 되찾게 된다. 1997년, 작업시간에 영향을 주는 트로잔의 평균 재해 회수는 총 6회였다. 그러나 과거 3년 동안 한 번도 이와 같은 재해가 없었으며 2003년에는 단지 7건의 미미한 재해만 발생했다. 이에 STOP을 시행한 이래로, 트로잔의 산업재해 관련 비용은 6천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련한 고려사항과 솔루션들에 대해 토론한다.

심지어 퍼킨스는 “방문객들은 안전 환경을 착용하라고 직원들의 요청을 받아왔으며 어떤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출입이 금지됐다. 방문객들은 우리 직원들이 그들을 위해 감시할 수도 있다는 것에 놀랐을 것이다”라고 증언했다.

퍼킨스는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재해 관련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여왔다”며 “이를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원들이 작업장에서 서로서로를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은 가능한 위험을 내포하고

산업안전 프로그램 개발 총력

인-더-트레이너(PrintGuard Train-the-Trainer)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일리노이주 엘크그루브 빌리지 소재의 INX인터네셔널Co.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 만들어졌다.

각종 부문 검사 수행

PIAMA는 전화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9개 대형 인쇄 회사들이 그들에게 제공되는 건강과 안전 전문가를 고용하는 비용을 공동 출자함으로써 만들어졌다. 지금 PIAMA 회원들은 협회 규제 담당 한 직원으로부터 분기별 방문을 받을 수 있다.

그 직원은 모의 OSHA 조사를 수행하며 특별 훈련 주제 상에서 직원들과의 토론도 이끈다. 모의 검사 결과들은 안전 부문 향상을 위해 제안사항이 제출되는 회계보고 안에서 분석된다. OSHA는 PIA의 조사 결과에 접근할 수 없었다. 보고 서상의 정보는 단지 회사를 위해 사용될 뿐이었기 때문이다.

달라스 소재의 출판과 프로모션을 주요 업무로 하며 6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인쇄업체인 UMR커뮤니케이션스에서 안전 담당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데비 크리스천(Debbie Christian)은 "PIA 직원들은 우리 공장의 안전 규정과 현 상태에 접근하기 위해 우리 직원들과 길게 인터뷰했고 상담전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 그 프로그램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결정하게 했다"며 "이 프로그램 시행 1년 후 우리 직원들은 안전관련 각종 사항들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됐고 우리가 OSHA 검사를 받을 때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매우 큰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소규모 업체에 유리한 전화 상담

전화상담의 가장 중요한 이점중의 하나는 실제 OSHA 검사의 경우에도 PIAMA가 건강 및 안전 담당 직원으로 대표자 한 명만 보내도 된다는 것이다. 카알레라는 "OSHA 직원이 회사를 방문하더라도 대부분의 많은 인쇄업체들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PIA는 OSHA와 안전규정 위반 벌금을 막거나 줄이기 위해 일하고 있다. "OSHA는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일반적인 검사에서 해결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전한다"라고 카알레라는 말한다.



텍사스주에 위치, 42명의 직원을 고용한 운전 및 매엽 전문 인쇄업체 컴플리트프린팅&퍼블리싱의 제너럴 매니저 랜디 리에드케(Randy Liedtke)는 2002년 4월에 전화 상담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PIAMA는 컴플리트프린팅&퍼블리싱을 위해 안전 매뉴얼을 준비했다.

리에드케는 "전화상담 프로그램 가입은 가치 있는 노력"이라며 "회계 장부상에서 나타난 우리의 보험 경력과 관련, 우리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연간 10% 절감할 수 있다고 추천한 것이 실효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선도 소규모 업체들과 함께 한다

조언을 구하는 소규모 업체들로부터의 수많은 요청을 다루기 위해 PIAMA는 소규모 업체 선도자들과 함께 안전-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했다.

텍사스 주 정부는 PIAMA와 함께 소규모 업체들을 위한 출판과 유통 비용에 관한 안전 규정 가이드를 개발하는 것을 도왔다. 이 핸드북은 복잡한 OSHA의 법규들을 쉬운 영어로 번역해 놓았다. 주 전역에 걸친 수 천 개의 인쇄업체들은 복사본을 받았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내왔으며 PIAMA 또한 회원들에게 이를 공급했다.

한편, 오클라호마주 정부도 현재 텍사스 템플레이트의 지원을 받아 2005년 발간을 목표로 안전 가이드를 만들고 있으며 캔사스주 및 미저리주 정부도 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갑준 기자〉